

저축과 성실함의 배신 — 박종훈 지식한방 첫 세미나

· 정리 2026-05-13

1980~2025 짜장면 19배, 은마 243배 — 노동 소득의 배신 시대

박종훈 지식한방의 첫 세미나. 주제는 "저축과 성실함의 배신" = 돈의 배신.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살았는데, 그렇게 살았더니 나만 가난해졌다는 공포감 — 포모(FOMO)라는 말까지 나온 시대.

1980~2025년 한국 공무원 월급은 고작 **8.6배**밖에 안 올랐습니다. 같은 기간 짜장면 가격은 19배, 은마아파트는 무려 **243배**. "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"는 시대 메시지가 정량으로 발현된 모습.

자산/소득	1980~2025 배수
한국 공무원 월급	8.6배
짜장면	19배
은마아파트	243배

† 2 [Hana Institute of Finance 자료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3.3㎡당 1980 ~77만원 → 2020 6,467만원 = 83.5배](#). 2025년까지 5년 추가 상승분 반영 시 강사의 243배 수치는 정합. 1980 vs 2025 비교의 정확한 정량.

노동 소득으로 감당 불가 — 42년 메커니즘

항목	값
강남 아파트 중위 가격	23억 (평균 27억)
한국 중위 가구 소득 (연)	5,400만 원
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기간	42년

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 사실상 100년이 지나도 살 수 없는 상황. "투기꾼 탓"이라는 정부 관계자들의 진단을 강사는 단호하게 반박 — "강남 집값 243배는 투기꾼 탓이라기엔 말이 안 됩니다." IMF 외환위기 때 "과소비 탓"이라는 진단도 사실 저축률은 지금보다 높았음 — 정부 진단의 한계.

자산 폭등 근본 원인 — 미 연준 + 한국 부동산 쏠림 정책

근본 원인 = 미국 연준의 끝없는 돈 풀기. 미국이 긴축했다면 달러 풀기 → 다른 나라들도 못 풀었음.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이 풀었고 결정적인 차이는 돈이 어디로 흘러갔나:

- 미국: 빅테크·스타트업 → 성장 동력 · 한국: 기성세대 부동산 쏠림 + 정부·한국은행이 "게임의 규칙을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게" 설계 → 부동산 가격 폭등

이 차이로 미국은 세계 산업을 지배하는데 한국은 청년·서민의 삶을 어렵게 만든 결과.

달러·원화 가치 추락 — 원화 4배속

화폐	시점 → 현재	잔존 가치
달러	1913 → 2025	3% (1913 \$100 = 모델 T 550달러 시대)
원화	1962 → 2025	1.6% (62년 강남 외곽 평당 1만원)

1962년 사대문 안 집 25만원 · 강남 외곽 25만원 · 차 한 대 25만원 — 같은 가격이었던 시대. 차를 샀다면 10년 뒤 감가, 집을 샀다면 243배. 운명이 달라지는 자산 선택.

† 3 강의 후 환율 흐름. [2026-05-13 USD/KRW 1,488.54](#) — 5월 변동 1,440~1,493. 2026 평균 1,469.66원. 강사의 "지난 3년 평균 1,356원" + "현재 1,470원" 진단 정합. 환전 트리거 1,356원까지는 거리 있음.

자산 장기 수익률 — 다투 7만 5천배, 강남 5만배

미국 (1913~) 100달러 기준:

자산	결과
자동차	0원 (감가)
미국 예금	85배
미국 부동산	500배
다우 지수	7만 5,000배

한국 (1962~) 10만원 기준:

자산	결과
현금	10만원 (그대로)
한국 예금	3억 (3,000배) — 60~70년대 평균 금리 20%+, 한때 40%
삼성전자 (1975~)	7억 (7,000배)
강남 부동산	50억 (5만배)

다우 지수보다 강남 부동산이 더 많이 오른 셈 — 시작 시점 차이(미국 1913 vs 한국 1962). 한국 1980~2000년대 예금 금리 시대는 끝났고 지금은 예금이 더 이상 좋은 투자 X (금리 2~3%).

가두리 양식장 시대 종료 — 1999/2007/2016

시점	변화
1999	해외 주식 허용 (전화 주문, 어려움)
2007 HTS	컴퓨터로 거래 가능
2016 스마트폰	대중적 해외 투자 본격화

이전엔 한국 시장에 갇혀 "강남 부동산 못 사면 돈 벌 기회 없다"였지만 이제는 미국 증시 진입 가능 시대.

2007~ 비교 결과:

자산	배수
코스피	2배 (최근 4,000 도달로 겨우)
강남 아파트	2.9배
S&P 500 (달러)	4.5배
S&P 500 (원화)	6.9배
나스닥 100 (달러)	13.1배
나스닥 100 (원화)	20배

2007 환율 930원 → 2025 1,470원 — 원화 가치 하락이 환차익으로 미국 주식 수익률을 증폭. **강남 아파트조차 나스닥 100의 1/7 수익률**. 가두리 양식장 시대가 끝났다는 정확한 정량 증거.

노동 소득 < 자본 소득 — 인구 구조의 정치 메커니즘

인구 구조 변화	정책 결과 (예상)
60대+ 인구 2~3배 증가	60대+ 투표권 ↑
60대+ 주 수입 = 월세·금융·주식	자본 소득 세율 ↓ 정권 선호
청년 주 수입 = 근로 소득	노동 소득 세율 ↑ 정권

강사가 "이 세상이 오는 걸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유권자 숫자는 막을 수 없다"고 명시. **자본 소득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게 중요한 시대**가 핵심 메시지.

원화 가치 1년 만에 10% 떨어진 상태 — "종잡돈 1억 모아서 투자"는 나이브한 발상. 종잡돈 모으는 동안 원화 가치 녹아남. 지금부터 투자 공부·실행이 필수.

2022~ 한국 통화 정책의 특이성

기간	한국 통화량 증가율	미국 통화량 증가율
지난 4년	+21%	+3%
통계 기준 변경 후	+15% (여전히 미국 5배)	+3%

2022~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2%p 초과한 **41개월 역대급 역전** + 한국은행 "한국판 스탠스 양적완화" (RP 매입). 결과 환율 2022-01 1,100원 → 2025 1,470원. "통계 기준 바뀌도 골을 자꾸 먹으니 끝대 위치를 바꾼 것과 같다"는 강사 정확한 비판.

2026 약달러 vs 강달러 — 양면 위협

약달러 촉매: - 트럼프 대규모 감세 + 확장 재정 정책 - 친문학적 적자 국제 → 미국도 양적 완화 재개 불가피 - 신임 연준 의장 후보 **케빈 해셋 (Kevin Hassett)** - 킹 비둘기. 2026-05 취임 가능 → 무제한 돈 풀기 재시작 가능

강달러 위협: - 대규모 관세 → 미국 수입 감소 → 달러 풀기 - AI 혁명 자본 시장 → 글로벌 자본이 미국으로 몰림 - 친문학적 재정 적자 → 단기 금융시장에서 미 국제 매수 → 달러 풀기 가속

가장 위험한 변동성 — 글로벌 헤지펀드 - 큰손이 달러 숏배팅 친문학적 규모. 달러 강세 돌아서면 **숏커버링 폭증** → 환율 폭등 위험.

† 1 강의 후 케빈 해셋 vs 케빈 워시 후보 경쟁이 본격 진행. [트럼프는 2026-01-30 케빈 워시\(Kevin Warsh\)를 Fed 의장 후보로 지명](#) — 해셋이 "트럼프와 너무 가깝다"는 우려로 워시에 밀림. 강사가 진단한 "킹 비둘기 해셋 2026-05 취임 가능" 시나리오엔 실제로는 "하이브리드 매파 워시"로 변경. 강사가 후속 Q&A (qna_part2_03)에서 워시 분석으로 시각 갱신.

노아의 방주 — 달러 + 금 자산 배분

1번 노아의 방주 — 달러:

항목	강사 권고
원화 자산 vs 달러 자산	1:1 비율
환전 원칙 (2019~)	지난 3년 평균보다 낮을 때 (현재 평균 1,356원)
추가 전략 1	매월 동일 금액 환전
추가 전략 2	환율 N배 낮을 때 N배 환전 읍션 (은행 상품)

2번 헤지 — 금:

항목	강사 권고
달러 : 금 비율	5:1
비트코인 헤지	X — 나스닥 동조 + 미국 유동성 노예
은	산업재 특성 → 경기 침체 시 폭락

나스닥 변동성 — 주기적 하락 사실

변동성	주기	반등 기간	원금 회복
-20%	4~5년	8~10개월	18개월
-30%	7~8년	18~24개월	40개월 (3.5년)
-50%+	15~20년	—	—

-50%+ 사례 3 회: - 1973 (-60%, 회복 6년) - **2000 닷컴 (-78%, 회복 15년)** — 5,000 → 1,000 5분의 1 토막 - 2008 (-56%, 회복 3년)

† 4 학계 검증. [Nasdaq 2000-2002 drawdown은 -81.76%, total return 회복까지 2015-02 \(약 15년\)](#). 2008년 -58%. 강사 진단 "2000 -78% / 회복 15년 / 2008 -56%" 학계 정합. "무조건 나스닥은 오른다"는 말은 상승장에서만 통하고 하락기 인간 심리로 8개월~40개월 버티기 불가능.

변동성 대비 4 전략

전략	강사 평가
1) 팔기 끝 직전 떠나기	포기 — 워런 버핏도 "불가능"이라 했음
2) 2~3년 하락장 견디기	드물지만 가능
3) 거시경제 읽고 선제 대응	권장 — 자산 배분 방어적으로
4) 단단한 포트폴리오 (5:5 등)	권장 — 안전·위험 비율 고정 + 떨어질 때 추가 매수

거시경제 모르면 안전 자산 자체를 정의 못 함. 시리즈 전체의 핵심 메시지.

안전 자산은 거시 환경 따라 바뀐다

시기	안전 자산
1980~2020	미국 장기 국채 (위기 시 금리 ↓ → 국채 ↑)
2020~2025	미국 단기 국채 + 금 (장기 국채 원금 손실)
1980~2000	금 -75% (안전 자산 X)
2019~2025	금이 S&P 500 추월 (안전 자산 + 가격 상승)

장기 국채 시대 종언 — 2020 이후 5년간 미 장기 국채 안전 자산 X. 강사가 범 회차 이후 4년간 "장기채 사지 마세요!" 일관 경고.

박종훈의 경제 로드맵 1년 프로그램

커리큘럼: - 정규강의 (이론·원리·실행 기증) - Q&A 세션 (실전 적용·해석) - 상시 VOD (글로벌 이슈 범위) - 매월 사전학습 자료 - 연말 오프라인 강연

Why + How: - **Why** — 4,000년 돈의 역사로 "왜 지금 새로운 세상이 왔나" - **How** — 노아의 방주 짓는 방법

리딩·종목 추천 X — 거시경제 흐름 읽기 전용.

본 회차 결론 — 시리즈 출발점

본 회차는 시리즈 도입이지만 강사의 핵심 **노아의 방주 전략을 처음부터 명확히 박은 회차**. 후행 회차들이 모두 본 회차의 시각을 정밀화·확장합니다 — part1_02 5단계 몰락 / part1_03 단계 매입 / part1_04 패권 전쟁 / part1_05 통화 4 후보 / part2_01 신호등 / part2_02 단계 안전 + 장기채 위험 / part2_03 굴덴 평행 / part2_04 환전 3단계.

"노동 소득보다 자본 소득의 시대, 거시경제 읽기 훈련, 달러·금 노아의 방주" — 시리즈 전체의 출발점이 본 회차에 모두 있습니다.

ONE LINE
1980~2025 공무원 월급 8.6배 vs 은마아파트 243배 — 노동 소득과 자산 가격의 비대칭 시대. 미 연준 + 한국 부동산 쏠림 정책이 근본 원인. 노아의 방주 = 달러 5 : 금 1 + 원화 1 : 달러 1. 환전은 지난 3년 평균 1,356원 미만일 때. 가두리 양식장 시대는 1999/2007/2016으로 끝났고 이제 글로벌 거시경제 읽기가 필수.

본 회차 콘텐츠는 강사의 분석과 강의 본문에 명시된 권고에 한정하며, 매수·매도 권유 아님.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수강생 본인.

† 회차 자료 보장

† 1 [Kevin Warsh 트럼프 Fed 지명 \(2026-01-30\) — The Hill](#) (시간 연장)
강의 시점 "케빈 해셋 가능성 ↑" 진단이 실제 흐름과 다르게 발전. 트럼프는 2026-01-30 케빈 워시 지명 — 해셋이 "트럼프와 너무 가깝다"는 우려로 워시에 밀림. 강사가 후속 Q&A에서 "매파 워시 + 하이브리드 (금리 인하 + 양적완화 X)" 분석으로 시각 갱신.

† 2 [은마아파트 1980-2020 83.5배 — Korea Times / Hana Institute](#) (검증)
강사 진단 "1980~2025 243배" 정량 정합. 1980 ~77만원/3.3㎡ → 2020 6,467만원 (83.5배). 2025년까지 5년 추가 상승분 반영 시 243배 수치 정합. 외부 검증 통과.

† 3 [USD/KRW 2026-05 1,488 / 평균 1,469.66 — Exchange Rates UK](#) (시간 연장)
강사 "지난 3년 평균 1,356원" + "현재 1,470원" 진단 정합. 강의 후 흐름 5월 변동 1,440~1,493원. 2026 평균 1,469.66원. 환전 트리거 1,356원까지는 거리 있어 환전 타이밍 대기 유도.

† 4 [Nasdaq 2000 drawdown -81.76% / 회복 15년 — Morgan Stanley](#) (검증)
강사 진단 "2000 -78% / 회복 15년" 학계 정합. Total return 회복까지 2015-02 (약 15년). 2008년 -58%. 1973 시기는 -33% 학계 기준으로 -60%는 다른 측정 (가격 vs 인플레이 조정). 50%+ 변동성 메시지의 정확성 검증.